

Daily Auto Check

2020. 9.7(Mon)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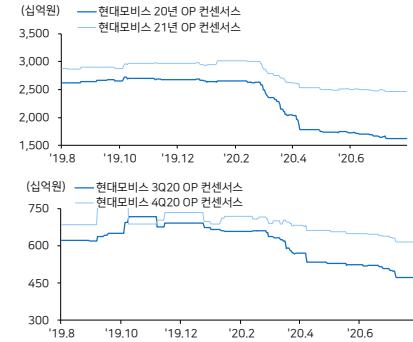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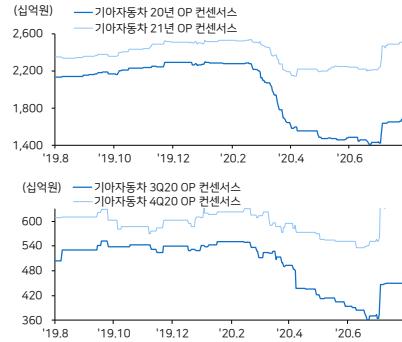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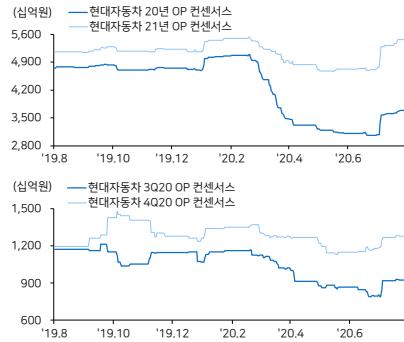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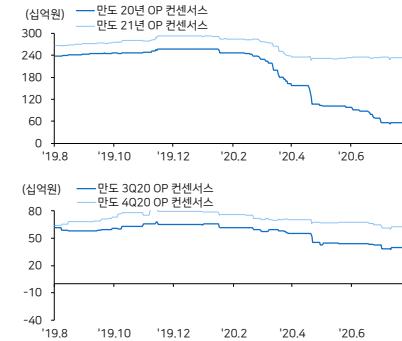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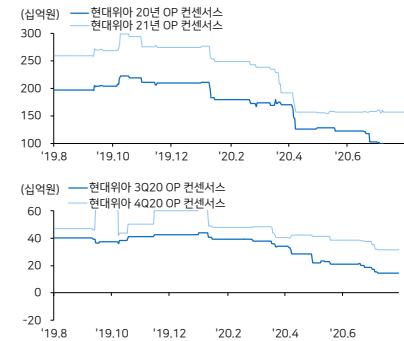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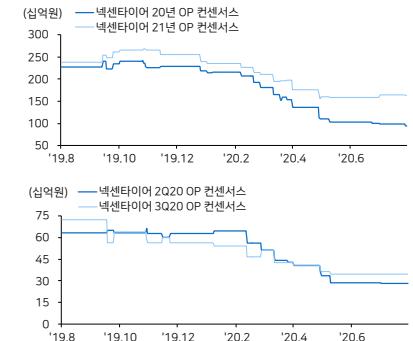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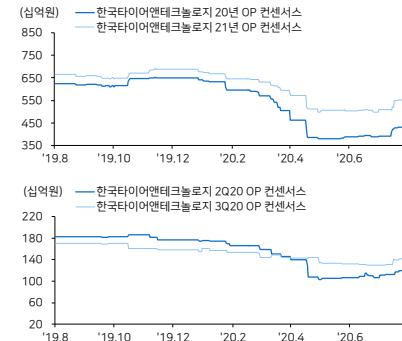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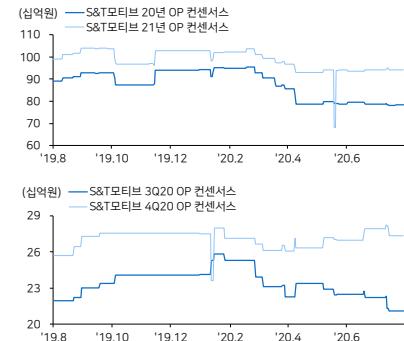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노사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협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현대기아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전기차 전용공장이 핵심 학문으로 떠오름, 노조가 전용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가운데 총액 추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낸다.
<https://bit.ly/329nCK5>

미국·유럽·화시장 회복세…현대·기아차도 '생생' (뉴스1)

코로나19로 전동차 위축됐던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인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음. 미주·유럽·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문화하고 있음.
<https://bit.ly/2rgfMfb>

한국타이어, 유럽 판매가격 3% 인상 (더글루)

한국타이어가 유럽 시장에서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가격을 3% 인상. 한국타이어는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
<https://bit.ly/317w3e7>

中 자동차산업 코로나에도 고백없다…올해 매출·순익 유지 전망 (뉴스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올해 꾸준한 매출과 순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이훙회 국가개발위원회 회장은 이날 텐진에서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가 주최한 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함.
<https://bit.ly/3jVhwme>

현대차 가격 2년전보다 19%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2년 전에 비해 19%, 기아차는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2·4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차의 평균 판매단가는 3340만원으로 지난 2018년 2800만원에 비해 540만원(19.3%) 상승.
<https://bit.ly/2ZfmAQ>

현대차, 결합논란 '전기버스 인휠모터' 결국 뺀다 (전자신문)

현대차가 결합 논란이 제기된 자사 전기버스의 인휠 모터를 결국 뺀다. 현대차는 인휠 모터를 개발해 지난 2018년부터 자사 전기버스 차량에 장착. 그러나 결합 논란을 빚으면서 근본 결합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https://bit.ly/2hAwJp5>

S&T모티브, 현대모비스 평택 신공장 건설에 성장 면모? (뉴스원)

S&T모티브가 전기차 핵심부품 성장에 빨간불이 켜짐. S&T모티브는 그동안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전기차용 모터 부제품을 납품해왔는데, 현대모비스가 평택 신공장을 통해 이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
<https://bit.ly/31k52w5>

한국 이어 중국도 수소차 드라이브 (더글루)

중국 정부가 수소차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수립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업들도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높이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
<https://bit.ly/31YFT9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거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협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